

전립선암 로봇수술 원탁회의 결과문

『로봇수술의 명암과 비전』

I. 본회의 결과

로봇수술은 비뇨기과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였고 현재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다. 로봇수술은 개복술이나 복강경 수술에 비해 전립선암 수술 후 요실금, 성기능 감퇴와 같은 삶의 질 관련 부작용이 적고, 수술 중 출혈도 적다. 집도하는 의사 측면에서는 피로도가 적다는 장점도 있다. 또한 수술할 때 시야를 3차원으로 확대해 주는 기능이 있어 주변장기의 손상이 적으며 재원기간을 단축시키고 통증이 상대적으로 약하다.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 분석결과에서도 로봇수술은 기존수술에 비해 기능적 결과 측면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. 종양학적 결과에 있어서는 절제면 양성률은 발생위험의 차이가 없어 장기 추적 관찰된 결과가 필요하다. 전립선암에 대한 로봇수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전립선암의 로봇수술 건강보험급여화가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. 이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사이의 의료이용 양극화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 위암 로봇수술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비용적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산 로봇수술 장비 개발이 시급하다. 향후 대안별 비용대비 효과를 평가하는 경제성 평가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.

II. 후속조치

본 원탁회의는 정책토론회의 기능을 겸하였으므로 별도의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고, 발표자와 패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논문으로 게재하기로 하였다.